

## 고등학교 특성별 경제 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

민 세 진\* · 홍 진 주\*\*

**논문 초록** 본 연구는 고교 경제 교육의 현황과 차이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 격차의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예술 계열 특목고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전체 고등학교 중 2019학년도 현재 2학년에 경제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4%이다. 둘째, 로짓 분석 결과 경제를 가르칠 교사의 존재가 설명변수 중 경제 개설에 미치는 양(+)의 한계 효과가 가장 크다. 이는 과목 개설에 공급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경제 교사의 양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 교육의 차이가 지역별, 학교 규모별, 소득별, 성별로 존재함이 확인된다. 서울 및 대도시 소재의 학교로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개설 가능성이 높으며, 여고인 경우 개설 가능성이 낮다.

**핵심 주제어:** 고등학교 경제 교육, 교육 격차, 로짓 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2, I2

투고 일자: 2020. 9. 8. 심사 및 수정 일자: 2020. 12. 1. 게재 확정 일자: 2021. 1. 10.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경제학과 교수, e-mail: sejinmin@dongguk.edu

\*\* 공동저자,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광덕고등학교 교사, e-mail: redpearl844@naver.com

## I. 들어가는 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제’ 시험을 친 학생은 사회탐구를 응시한 수험자 266,301명의 2%로 5,452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험자 509,245명 중에서는 1.07%에 해당한다. 2%란 비율은 문과 수험생들이 선택하여 시험을 보는 사회탐구 영역 9과목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문과 수험생은 9개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sup>1)</sup> 2019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수험자 비율은 ‘생활과 윤리’가 47.9%, ‘사회·문화’는 44%였다. 이렇게 경제를 택한 수험자 비율이 낮은 현상은 장기간 진행된 결과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문과 학생 비율은 3.3%로 최근 수치보다 높았다. 2009학년도 수능에서는 경제 수험자 비율이 20.3%였다. 물론 10년 전에는 선택과목 수가 더 많았던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응시자 비율로 봤을 때 경제는 당시 사회탐구 11과목 중 6위로 중간이었던 데 반해(기획재정부, 2011) 현재는 최하위로 굳어졌다. 더구나 경제 수험자의 비율 하락은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할 정도이다(경제 수험자의 비율이 낮고,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안병근(2010), 정연호 외(2012), 박상은·오영수(2015), 한경동(2018) 참조).

이렇게 경제 수험자 비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 과목이 문과 학생들에게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어렵게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진정한 문제는 경제 수험자 비율이 낮은 것이 고등학교에서 경제 교육이 적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일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한가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는 하다. 하지만 어쩌면 어떤 과목이든 그 분야를 공부할 마지막 기회가 될 고등학교 때, 인구의 1%에<sup>2)</sup> 못 미치는 인원만이 시험을 볼 수준으로 경제학을 진지하게 공부해 봤다는 현실은 경제학계 전반이 관심을 기울일 사안일 지도 모른다. 물론 경제 과목을 이수했지만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이 공통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과목에 경제학적 내용이 포함되지만, 곧 투표권을 갖게 되는 미래의 시민이 경제 현상 및 정책을 이해할 수

1) 이와 수험생은 8개 중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장에서 한다.

2) 2019학년도 수능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른 2000년생의 인구는 634,501명이다.

있는 소양에 필요한 교육을 이 정도로만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고등학교 경제 교육 공급은 학교 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등학교 중 일반적으로 진학이 가장 어렵다는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학년도 기준 전국단위 자사고인 A고 문과는 1학년 때 1, 2학기에 걸쳐 수능 필수 과목 한국사와 함께 경제를 반드시 배우도록 편성되어 있다. 다른 전국단위 자사고인 B고나 C고 등은 경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학교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해외 대학 진학으로 유명한 D고의 경우 국내 대학 진학 과정에 경제가 없지만 해외 대학 진학 과정에는 대학 수준의 경제 과목을 가르친다. 한 칼럼에 따르면 제한된 표본이긴 하지만 서울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고등학교의 약 90%가 경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해 전남의 여수교육지원청의 경우 약 25%만이 경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sup>3)</sup>

물론 이러한 결과는 경제 과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가 경제 교육을 원하는 정도에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의 상황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2011)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기 때문인 한편, 교사가 경제 과목을 개설하는 이유로는 지식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의 수요가 주요하게 꼽혀,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이 드러난다. 경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 교육에 유의할 만한 격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인이 설명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경제 교육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한경동(2016, 2018)은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아는 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고등학교 경제 교육 현실은 아직 면밀하게 연구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고교 경제 교육의 현황과 차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차이가 존재한다면 소득 수준을 포함한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특성 등과의 관련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와 예술 계열 특목고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1,758개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58개 고등학교 중 2019학년도 현재 2학년에 경제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4%이다. 경제 과목을 마

3) '지방과 달리 'SKY캐슬 고교'선 경제 교육... 불평등 부채질', 중앙SUNDAY 2019. 1. 19.

치 필수 과목처럼 반드시 가르치도록 학교지정과목<sup>4)</sup>으로 어느 학년에라도 개설된 학교는 16.7%이다. 학교지정과목 개설은 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학년에서 개설 비율이 증가한 것은 선택권이 확대된 학생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비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기획재정부(2011)에서 집계한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2005-2010년 평균 경제 개설 비율 40.8%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로짓 분석 결과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존재(경제가 학교지정과목으로 편성된 학년이 있는지를 대리 변수로 사용)가 설명변수들 중 경제 개설에 미치는 양(+)의 한계 효과가 가장 크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었지만 과목 개설에 공급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경제 과목 개설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교사의 양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 교육의 차이가 지역별, 학교 규모별, 소득별, 성별로 존재함이 확인된다. 서울 및 대도시 소재의 학교로 규모가 클수록, 시·군·구 단위로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개설 가능성이 높으며, 여고인 경우 개설 가능성이 낮다. 특히 여고 여부는 경제 과목이 선택 과목에 포함되는 데에는 유의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으나 실제 개설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실증 모형 및 데이터를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보이고, 제Ⅴ장에서 맺는다.

## Ⅱ. 선행 연구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 1. 선행 연구

국내 선행 연구는 수능에서의 경제 과목 선택에 관한 연구, 수능 경제 과목 선택과 연결하거나 무관하게 학교의 경제 과목 개설 여부를 탐구한 연구, 고등학생의 경제 지식수준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상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지만, 단위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필수 과목처럼 편성된 과목을 학교 현장에서는 편의상 ‘학교지정과목’이라고 부른다.

안병근(2010)은 2008년도 전국 4개 교육대학교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능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요인, 즉 과목 선호도나 수능에서의 유리함에 대한 판단, 과목 난이도 등을 분석한다. 개인별 데이터를 이용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경제 과목을 학습하게 된 계기의 58.4%가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p. 7) 학교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와 달리 한경동·장경호(2011)의 연구에서는 수능 경제 과목 선택과 학생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반적인 성적이 우수할수록,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시 지역일수록 수능에서 경제를 더 선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호 외(2012)는 수능에서 경제 선택 응시 학생의 비율이 2011학년도부터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를 최대로 응시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수의 감소로 파악하고 있다. 박형준·김은영(2013)은 안병근(2010)과 유사하게 경제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능 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장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수능 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 1학기 서울·경기 지역의 2, 3학년에서 경제 과목을 이수한 학생 357명의 가정 경제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가정 경제 수준은 경제 과목 선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박상은·오영수(2015)의 연구에서는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다른 일반사회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사교육 비율, 도시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특성에 따른 수능 경제 과목 응시 학생 수를 분석한 한경동(2018)의 연구에서는 읍면의 고등학교보다 시 또는 특별/광역시 고등학교가, 국공립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유형으로 볼 때는 특성화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의 순으로, 남녀 공학 여부로 볼 때는 여고, 남녀 공학, 남고의 순으로 평균 응시 학생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수능 경제 과목 응시자가 속한 학교의 특성에 주목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학교 개별 데이터가 아닌 에듀데이터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하다보니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개별 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회귀 분석을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고등학교의 경제 과목 개설 여부와 관련해서 정연호 외(2012)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의 선택률, 즉 경제를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시 지역보다도 지역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제주, 경기, 인천, 대구 순으로 높고 지역 간 불균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별 고등학교 경제 개설 학교 수와 경제 선택 학생 수를 분석한 한경동(2016)의 연구에서는 2012년 서울, 경기의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개설 2학년 및 3학년의 학교 수와 경제 선택 학생 수가 월등하게 많음을 확인하였다.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지역 내 개설 학교 수와 성별 선택 학생 수의 차이는 제한적이나, 전국 230개 시, 군, 구 기준에서는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고, 경제 개설 학교 수와 경제 선택 학생 수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선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으로는 인구를 포함한 문화 시설 기반 수, 투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지역의 소득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와 제조업 종사자의 수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개별 학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수준을 포함한 지역의 특성을 더 면밀히 반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경제 지식수준과 관련해서 조영석·박송춘(2008)은 고등학생의 금융경제지식 수준의 지역별 차이와 현황을 분석하여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금융 교육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의 12학년 대상 금융소비자 교육 국가기준에 의거한 문제지를 한국의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이용하여 2006년 기준 미국과 수도권, 전라남도 지역의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비교하고, 미국, 수도권, 전남 지역 순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박문규(200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의 고등학생 2,658명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 테스트를 한 결과, 경제 이해력의 절대적인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해외 경제 교육 관련 연구로는 Stigler(1970)가 던진 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만하다. 그는 어떤 지식이든 취득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 문제에 이해력(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사람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너무나 빈번히 요구되기 때문에 모두가 소유해야 하는 지식일 것, 둘째, 자주 이용되지만 전문가로부터 구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식일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경

제 지식은 이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학자가 되어야 한다(...every American must be his own economist, p. 81)”라고 역설하며 광범위한 경제 교육을 지지했다.

이보다 10년쯤 앞선 시기에 Bach(1961)는 내일의 시민이자 투표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제학계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경제 교육에 대해 경제학계의 전반적 태도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1)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은 어차피 뒤엎어야 하므로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 (2) 경제학은 너무 어렵고 중요해서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3)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경제학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4)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만약 무엇이랄도 해야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한다. 그러나 Bach는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해 운영되고 상당 부분의 정부 사안은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제 체제 내에서 유능한 시민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경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개인적 유용성보다는 시민의 소양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지식을 보고 있고, 경제 지식을 갖춘 시민이 유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전제하여 교육 체제를 통해 소양을 갖춘 시민의 수가 사회적 최적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 교육이 실제로 유효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Walstad(1997)는 1992년에 18세 이상 무작위 추출 1,0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갤럽 조사를 분석하여 다양한 경제 정책 사안에 대해 경제 교육을 받은 성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경제학자처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해당 조사는 경제 지식을 시험하는 문항들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묻는 문항들,<sup>5)</sup> 그리고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등을 포함한 정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나이, 성별, 인종, 소득, 지지 정당 등을 통제했을 때 경제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 사안들에 대한 응답은 주류 경제학계

5) 조사에 포함된 경제 사안들은 (1) 통화정책의 주체가 중앙은행이어야 하는지, (2) 기업에 대한 과세를 늘려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지, (3) 일자리 공급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지, (4)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원유 공급이 감소할 때 미국 정부가 석유 및 가스 가격 이상을 금지해야 하는지, (5)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지 등이다.

의 응답 성향과 유의하게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경제 지식 점수에는 다른 통제 변수들과 함께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한 학기 이상 수강한 경우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만 경제 교육을 받은 경우 경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고등학교의 경제 교육 내용이 학교 및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되었다. 비록 지식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연구들이 있지만 Louis Harris & Associates, Inc. (1999)의 조사나 Walstad and Rebeck (2001)은 고등학교 때 경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경제 이해력에서 나온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였다. 물론 어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Bosshardt and Watts (1990)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경제 이해력 평가에서 자질을 갖춘 교사에게 배운 경우 학생의 경제 이해력이 높다는 실증 결과를 보였다.

경제 지식은 시민의 소양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economic competence)이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도 중요하다. 특히 경제 지식의 불균등이 소득 창출 능력이나 자산 형성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소득이나 자산의 불균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된다. Wuttke et al. (2016)은 책 전체에 걸쳐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금융 이해력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여러 장에서 강조된다. Grimes et al. (2010)은 2008년에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 추출된 성인 대상 전화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경제학 및 관련 수업을 들은 경우 은행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확률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보였다. 현재 한국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고 문과 계열 졸업생의 취업이 더 어려운 현실에서 문과 고등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대학의 상경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한데, 고등학교 교육 이수 내용을 상당히 반영하는 입시 전형의 비중이 커서 고등학교 때의 경제 교육 노출 정도가 대학 전공과 관련을 가질 개연성도 있다.

김지운(2020)에서는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이 2/3 정도를 차지하는데, 조건 중에서도 인적 자본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적 자본을 양으로만 측정하였지만, 그 내용이나 질의 차이 역시 생애소득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연결 고리가 길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 노출이 이후 인적 자본 형성과 연관이 있고 생애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미국의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보고에는 Walstad and Soper (1988), Becker et al. (1990), Walstad (1992, 2001) 등이 있다. Walstad and Soper (1988) 와 Becker et al. (1990) 은 주로 경제 이해력 시험 (Test of Economic Literacy) 결과를 분석하여 경제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논의한다. Walstad (1992, 2001) 는 양적으로 확대된 미국의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현황을 보고하고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문헌 정리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필요성이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수가 늘어나는 등 양적 확대의 성과를 거둔 한편, 2000년대 들어 교육의 질적 성과와 불균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과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다소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절에서는 이를 설명한다.

### (1)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준은 크게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Table 1>).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입각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간 구분이 명확해지고 교육과정 편성의 학교 재량권이 높아진 것은 6차 교육과정 (1992년 고시) 부터이

(Table 1) The Flow of Curriculum Decision

National Curriculum	Setting up the common guideline for school curriculum including objective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s.
↓	
School Curriculum	Organizing the subjects and units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the school, and the region.
↓	
Students	Selecting the subjects in the curriculum of the individual school
Individual School	Opening the subjects reflecting the students' demand

다. 6) 또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필수 과목이 축소되고 선택 과목이 확대됨으로써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가 커졌다. 7차 교육과정 (1997년 고시) 부터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 구분되는 선택 교육과정 기간으로<sup>7)</sup> 설정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됨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도 일정 범위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sup>8)</sup> 이렇게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지침 제공,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과목 선택이라는 교육과정 편성 기조가 완성됨에 따라, 현재 단위학교는 매년 입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시하고, 학생은 교육과정 편제표의 교과목 중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필

- 6)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구분은 광복 직후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공통의 교수요목을 마련한 교수요목기(1945년 고시)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6차 교육과정 (1992년 고시) 부터 기존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체제 도입,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 확대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이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 7)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을 분류한 체제를 도입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등학교 2년간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맞게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원화된 분류 체계는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수정되고 고등학교 1-3학년으로 기간이 확대되었다.
- 8) 제6차 교육과정 (1992년 고시) 의 경우 과목 선택권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만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 (1997년 고시) 부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 136단위 중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하되, 학생이 최대 5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한 과목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단위학교는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제시된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의 과목은 필수와 선택 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Table 2>과 같이 첫 번째는 공통 과목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두 번째는 학교지정과목으로 교육부의 교육과정 교과목 분류상 선택 과목이지만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수강하도록 마치 필수처럼 편성한 과목, 세 번째는 학생선택과목으로 실제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개설된 과목이다.

<Table 2> Category of the Subjects in the Individual School's Curriculum

Common (공통과목)		Basic subjects for every student including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Korean History, Common Social Studies, Common Science, Scientific Research (2015 revised curriculum)
Elective (선택과목)	School Choice (학교지정과목)	Subjects among the elective category in the National Curriculum that the individual school chooses for all the students in the school to study
	Student Choice (학생선택과목)	Subjects that the individual student chooses to study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교원 수급, 시설 여건 등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학생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강자 수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sup>9)</sup>을 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과목을 개설하고 그 과목을 개설한 인근 학교에서 수강한 학생에게 이수를 인정해주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sup>10), 11)</sup> 그러나 대도시 학교에 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9) 13명 이하가 수강하는 소인수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데, 소인수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에서 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10)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총론」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으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표현상의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제시되어 2010년 전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11) 공동교육과정은 거점학교나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한다. 공동교육과정의 명칭은 시·도교육청마

상대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눈에 띄게 나타난 학교 현장의 변화는,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학 과목을 학교지정과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주로 사회/과학 과목이 학생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만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생은 단위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 편제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므로,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 특성이 학생의 실제 수강 과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교내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 학교가 속한 지역 사회의 분위기, 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 교사의 특성, 학교 설립 목적 등 크고 작은 내외부적 환경이 학생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2) 과목 분류 체계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등학교(자율고),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성은 이러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편 2019학년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2학년과 1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학년별로 복수의 교육과정이 혼재하는 과도기가 있어, 개정 교육과정별 교과목의 유형 분류와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개정)부터 국가 수준에서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학교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체제와 수능이 여전히 두 과정의 구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단위학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여전히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두 과정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생 본인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및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세종시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18학년도부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도 하였다.

선택 과목을 조합한 ‘맞춤형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학교가 제공하고 있고, 동 교육 과정이 두 번째로 적용되는 2022학년도 수능 체제의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는 사회/과학 계열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자유수강제 체제를 따르고 있다.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일반고와 자율고는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에 포함되는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되는 특목고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 I에 해당하는 과목<sup>12)</sup>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상업고, 공업고 등이 포함되는 특성화고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에 해당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교과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은 보통 교과 탐구 영역 사회 교과(군) 중 일반선택 과목의 ‘경제’, 생활·교양 영역 교양 교과(군) 중 일반선택 과목의 ‘실용경제’, 전문 교과 I의 국제 계열 ‘국제경제’가 있다. 〈Table 3〉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선택과목인 ‘경제’, ‘실용경제’, ‘국제경제’의 내용 요소를 나타낸다. 이 외에도 단위학교에서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기존에 승인된 교과목을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다. 경제를 학습하는 여러 교과목 중에서 주로 선택되는 과목은 탐구 영역 일반선택 과목의 ‘경제’이다. 경제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전반적이고 기초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목이며 현재 수능 선택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교과 I의 ‘국제경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에 따라 여러 단위학교에서 편성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제 심화 교과목이다. ‘실용경제’ 과목은 경제 교육보다 교양 교육의 차원에서 개설

12) 보통 교과/전문 교과의 하위 분류 체계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간 다소 차이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 대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I 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Table 3〉 Economics Related Subject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ubjects	Contents
Economics (경제)	Economic Life and Economic Problems(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Market and Economic Activities(시장과 경제활동) Country and Economic Activities(국가와 경제활동) Global Market and Trade(세계 시장과 교역) Economic Life and Finance(경제생활과 금융)
Practical Economics (실용경제)	Economic Life of the Individuals and the Country(개인과 국가의 경제생활) Income and Consumption(소득과 소비) Savings, Investments, and Insurance(저축과 투자와 보험) Debt and Credit(부채와 신용) Getting Jobs and Starting up the Business(취업과 창업)
International Economics (국제경제)	Understanding of Global Economy(국제 경제 이해)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국제 교역 체제의 변화)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국제 통화 체제의 변화) The Challenges of Korea in the Global Economy(세계 속 한국 경제의 과제)

된 과목이다. III장의 연구 자료에서는 ‘국제경제’와 ‘실용경제’를 경제 교과 개설 여부 판단을 위한 교과목에서 제외하였으며, ‘경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고 국제 고등에서 ‘미시’ 및 ‘거시’를 개설하는 경우도 ‘경제’ 교육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다.<sup>13)</sup> 그 이유는 국제경제의 경우, 국제경제를 개설한 학교가 경제 역시 개설한 경우가 많아 그 중복 처리에 모호함이 있고, 국제경제의 교육과정 상 내용 요소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은 점이 있으며, 국제경제가 포함된 전문 교과<sup>1)</sup>은 이른바 성취평가제가 이루어져 석차등급에 따라 평가되는 탐구영역 일반선택 과목과 학생의 학습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경제의 경우 교육과정 상 내용 요소가 포괄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 생활·교양 영역 교양 교과(군) 일반선택 과목으로서 학생부에 이수 여부만 표시되어 경제와 학습 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2019년 기준 전국의 국제고의 경제 관련 과목 개설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국제고 명	경제 관련 과목	국제고 명	경제 관련 과목
서울	AP미시경제, AP거시경제	고양	국제경제
부산	AP미시경제, AP거시경제	동탄	AP미시경제, 국제경제
인천	AP미시경제, AP거시경제	청심	경제
세종	AP미시경제, 국제경제		

## (4) 수능에서의 경제 선택 비율

학생의 교과목 선택은 대학 입시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학생은 수시 전형 입학 위해 내신 등급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와 전공 적합성이 높은 과목, 또는 수능에서 응시할 과목을 주로 선택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한다.

〈Table 4〉 Numbers of Students and Proportions Taking Each Subject in Social Studies in Recent 4 Years

Subjects		2017		2018		2019		2020	
		Num.	Prop. (%)	Num.	Prop. (%)	Num.	Prop. (%)	Num.	Prop. (%)
Area and Social Studies (사회탐구영역)	Everyday Ethics (생활과 윤리)	188,061	58.3	184,127	60.62	186,279	61.38	168,994	58.73
	Ethical Ideology (윤리와 사상)	42,307	13.1	37,419	12.32	39,041	12.86	37,449	13.02
	Korean Geography (한국 지리)	91,072	28.2	80,131	26.38	76,186	25.10	71,703	24.92
	World Geography (세계 지리)	46,513	14.4	45,798	15.08	46,031	15.17	45,710	15.89
	East Asia History (동아시아사)	33,309	10.3	30,219	9.95	29,242	9.63	31,101	10.81
	World History (세계사)	25,023	7.8	22,801	7.51	21,675	7.14	22,975	7.98
	Law and Politics (법과 정치)	32,096	9.9	30,946	10.19	31,372	10.34	31,547	10.96
	Economics (경제)	7,985	2.5	6,675	2.20	6,734	2.22	7,015	2.44
	Social Studies and Culture (사회·문화)	178,032	55.1	167,959	55.30	169,138	55.73	157,825	54.85
Total		322,834	199.6	606,075	199.55	605,698	199.57	574,319	199.60

Note: The proportion indicates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taken the subject to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taken any of the subject in the area of social studies. Each student can choose up to 2 subjects.

Sour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able 4〉는 최근 4년간 수능에서의 사회탐구 과목별 지원 현황을 나타낸다. 수능에서 경제 선택 지원 비율은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가장 낮다. 수능에서 경제 선택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연호 외(2012)의 연구에서는 그 요인으로

수능에서 최대를 응시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수가 2개로 감소한 점,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되어 왔다는 점, 특목고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학생의 경제 응시율이 높아 변별력을 위해 경제 과목이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 악순환의 구조 등을 들었으며,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선택률과 수능에서의 응시율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경동·장경호(2011)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성적이 우수할수록,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수능에서 경제를 더 선택한다고 보였다.

### Ⅲ. 모형과 데이터

국내 선행연구 등을 통해 수능의 경제 과목 선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경제 과목의 제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횡단면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한다.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프로빗(probit) 모형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다.<sup>14)</sup> 즉, 학교  $i$ 가 경제 과목을 제공할 잠재성을  $y_i^*$ , 이 잠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X_i$ , 실제로 경제 과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는지에 대한 변수를  $y_i$ 라고 할 때, 로짓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y_i^* &= X_i' \beta - u_i \\
 y_i &= 1 \{ y_i^* \geq 0 \} \\
 \Pr(y_i = 1 | X_i) &= \Pr(X_i' \beta \geq u_i) = G(X_i' \beta) \\
 G(u_i) &= \frac{1}{1 + \exp(-u_i)}
 \end{aligned}$$

위의 로짓 모형식은 2019년 현재 2학년을 대상으로 경제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경제 과목이 선택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는지, 선택이 가능한 학교 중에

14) Ruud(1983)는 모수방법론의 일관성(Consistency)의 관점에서는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에 차이가 없으며, 추정치의 분산을 구하는 데 차이가 나지만 이 역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개설되었는지, 2019학년도 현재 1~3학년 학생들의 재학 기간 중 경제 과목이 학교지정과목으로 개설되는지 여부 각각에 대해 분석된다. 즉 개설되거나 선택 가능하면 1, 아니면 0을 부여하는 이항변수를 생성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2019년 2학년의 경제 과목 제공 여부에 주목한 이유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3학년인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학교가 지정한 과목을 다소 수동적으로 따랐다면, 2학년 학생들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학교 여건상 최대한으로 제시된 과목들 중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학년을 대상으로 경제 과목이 개설된 경우는 2학년에 학교지정과목으로 경제 과목을 제공하는 극소수의 학교와 2학년에 경제 과목이 선택 과목에 포함되고 실제로 개설된 학교로 구성된다. 즉, 2019년 3학년까지는 학교 여건이라는 과목의 '공급측' 요인이 주요했다면, 2학년 이하는 학생 선택이라는 '수요측' 요인도 작용한다는 면에서 실험에 가까운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09 교육과정에서도 과목 제공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지역 사회의 분위기나 학생 수요 같은 수요측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수요측 요인이 더 명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경제 과목 제공을 균형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공급측 요인에는 경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존재 여부가 있다. 사립이나 자율고·특목고 등 설립 형태의 경우, 사립은 교사가 전근 없이 재직하는 기간이 길다는 면에서 경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존재 여부와 맞물려 공급측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율고나 특목고는 학생이 선택하는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급측 요인이나 수요측 요인 모두로 볼 수 있다. 수요측 요인은 지역 및 소득 수준, 학생 수 등이 될 수 있고, 선택에 있어서 다른 과목과의 경쟁 정도도 실제 개설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연구에 이용한 데이터는 2019학년도 기준 전국의 일반고(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포함), 자율고, 특목고(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포함)인 1,758개 학교 전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sup>15)</sup> 각 학교의 자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부가 주관하고

15) 이는 특성화고나 예술 계열 특목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체 대상 학교 수는 1,760개이나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소재)는 학교알리미에 공시자료가 없고 양양여자고등학교는 폐교 결정으로 201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아 제외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에 개별 학교가 공개하는 것으로서, 학교알리미 자료는 주소 등의 기본 정보 외에 학생 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현황, 학업성취사항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학교알리미의 정보와 같은 개별 학교의 정보는 취합된 전자적 형태로 일반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시·군·구 단위나 학교의 설립 유형 등으로만 경제 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1,758개 학교에 대해 학교알리미에서 일일이 수집한 개별 상세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 포함할 수 없었던 변수들을 이용한다는 점에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학교알리미의 정보는 학생현황 중 2019학년도 현재 학년별 학생수와, 교육활동 중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에서 찾은 것이다. 또한 경제 과목 제공과 소득 수준의 관계를 보기 위해 시·군·구 단위 2017년 기준 지방소득세 자료와 가구 수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추출하여 가구당 지방소득세 변수를 사용하였다.<sup>16)</sup>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는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학교 중 2학년에 경제 과목이 선택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교는 36%이고, 실제 개설된 학교는 27.4%로 나타났다. 경제가 선택 가능하도록 한 학교 중에서는 74.6%가 실제로 개설을 한 것이다. 어느 학년에라도 재학 기간 중 경제 과목이 학교지정과목으로 개설되는 학교는 16.7%이다. 경제가 학교지정과목으로 된 경우 대부분은 2019학년도 기준 3학년이 대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3학년은 학교지정과목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2학년에서 경제가 학교지정과목인 경우는 연구자가 파악한 바로는 없으나, 다른 학년, 특히 3학년이 재학 중 경제가 학교지정과목인 적이 있었는지는 경제를 가르칠 교사가 있는지를 필요조건으로 하므로 유용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16) 지역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역총생산(GRDP)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지역총생산은 지역의 생산 활동의 결과를 산출하여 지역 내 가구가 얻는 소득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로 지역 내 가구의 소득을 대리한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개인지방소득 외에 법인지방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가구가 얻는 소득을 대리하기에 역시 한계가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Table 5〉 Variables and Summary Statistics

	Variable	Explanation	Mean	S. D.	Min.	Max.
Dep.	econ2nd	If Economics opened for 2 <sup>nd</sup> year students=1, o. w. =0	0.273606	0.445936	0	1
	econpossible	If Economics possible to choose for 2 <sup>nd</sup> year students=1, o. w. =0	0.360068	0.480157	0	1
	econm	If Economics was 'school choice (학교 지정과목)' for any grade=1, o. w. =0	0.166667	0.372784	0	1
Exp.	area	Area code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8.591013	5.018403	1	17
	capital	If Seoul=1, o. w. =0	0.135381	0.342228	0	1
	metro	If Metropolitan City=1, o. w. =0	0.368032	0.482407	0	1
	incometax	Average household local income tax (시·군·구 단위, in thousand won)	0.712308	0.961671	0.110053	12.65999
	private	If private school=1, o. w. =0	0.396473	0.489304	0	1
	general	general (일반고)=0, autonomous (자율고)=1, specialized (특목고)=2	0.162116	0.45815	0	2
	jasago	private and autonomous=1, o. w. =0	0.02446	0.154515	0	1
	sps	autonomous or specialized=1, o. w. =0	0.125142	0.330974	0	1
	type	general2 (일반고)=0, combined (중합고)=1, science (과학고)=2, international (국제고)=3, foreign language (외국어고)=4	0.139363	0.621589	0	4
	goodper <sup>1)</sup>	100 schools with high performance=1	0.057452	0.23277	0	1
	coedu	coeducation=0, boy=1, girl=2	0.595563	0.7932	0	2
	girls	If girls' high school=1, o. w. =0	0.19397	0.395519	0	1
	no2nd	number of 2 <sup>nd</sup> year students (in hundred)	2.034414	0.933549	0	4.62
	2ndset_18 <sup>2)</sup>	number of elective subjects in the same choice set with Economics	3.460751	5.036847	0	70
	2ndch_18 <sup>2)</sup>	number of subject to choose in the choice set	1.064846	1.463774	0	10
	choiceratio <sup>2)</sup>	2ndch_18/2ndset_18	0.132399	0.177082	0	0.75

Note: 1) 100 high schools which produced most graduates who entered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8 (20대 국회 전회경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8학년도 명수 기준 서울대학교 등록자 상위 100개교).

2) Relevant to the elective subjects for the 2<sup>nd</sup> year students in 2019 (entering in 2018).

2학년 대상 경제 개설 여부(econ2nd)를 주요 범주형 설명변수에 대해 나타낸 <Table 6>에 따르면 일반고, 특목고에 비해 자율고에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국제고등학교에서, 공학이나 여고에 비해 남고에서 경제 개설 비율이 높은 것이 드러난다.

<Table 6> Major Categorical Variables and Economics Opening Rate (EOR)

	Frequency	Proportion	EOR
general (일반고)	1,538	87.49	25.88
autonomous (자율고)	155	8.82	43.87
specialized (특목고)	65	3.7	23.08
general2 (일반고등학교)	1,647	93.69	27.87
combined (종합고등학교)	46	2.62	15.22
science (과학고등학교)	27	1.54	11.11
international (국제고등학교)	7	0.4	71.43
foreign language (외국어고등학교)	31	1.76	22.58
coeducation (공학)	1,052	59.84	24.71
boy (남자)	365	20.76	39.18
girl (여자)	341	19.4	22.87

<Table 7>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별로 경제 개설 비율을 보면, 서울이 유일하게 50%를 넘고, 대도시라도 대전, 울산 등은 높지 않다.

<Table 7> Regional Economics Opening Rate (EOR)

Region	Frequency	Proportion	EORa	Region	Frequency	Proportion	EORa
Seoul	238	13.54	52.9	Gangwon	88	5.01	18.2
Busan	101	5.75	18.8	Chungbuk	55	3.13	23.6
Daegu	71	4.04	26.8	Chungnam	79	4.49	30.4
Inchon	94	5.35	43.6	Jeonbuk	96	5.46	6.3
Kwangju	51	2.9	27.5	Jeonnam	87	4.95	19.5
Daejeon	48	2.73	12.5	Gyeongbuk	128	7.28	21.9
Ulsan	44	2.5	11.4	Gyeongnam	151	8.59	19.2
Sejong	15	0.85	26.7	Jeju	20	1.14	40.0
Gyeonggi	392	22.3	27.0	Total	1,758	100	

경제 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편차가 큰 것이 <Table 8>에 나타난다. 이러한 편차가 전국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는 전국의 시·군·구 단위 가구당 지방소득세 자료를 소득 수준의 대리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Table 8> Regional Economics Opening Rate (EOR) in Seoul

Gu	Frequency	EOR	Gu	Frequency	EOR
Gangnam	17	82.4	Seodaemun	7	42.9
Gangdong	12	41.7	Seocho	10	80.0
Gangbuk	6	0.0	Sungdong	6	50.0
Gangseo	16	62.5	Sungbuk	10	80.0
Gwanak	11	45.5	Songpa	16	50.0
Gwangjin	8	12.5	Yangchon	12	50.0
Guro	9	55.6	Yeongdeungpo	8	50.0
Geumchun	4	50.0	Yongsan	7	71.4
Nowon	17	52.9	Eunpyeong	11	54.5
Dobong	8	50.0	Jongro	10	60.0
Dongdaemum	8	50.0	Jung	5	40.0
Dongjak	6	16.7	Jungrang	8	37.5
Mapo	6	66.7	Total	238	

범주형 변수를 제외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계수는 <Table 9>에 나타나 있다.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econ2nd	econ possible	econm	capital	metro	incometax	private	jasago	goodperf	girls	no2nd
econ2nd	1										
econ possible	0.7943	1									
econm	0.1946	0.1415	1								
capital	0.2271	0.247	0.0818	1							
metro	0.1402	0.1107	0.0796	0.5185	1						
incometax	0.1272	0.1316	0.0078	0.3065	0.172	1					
private	0.0634	0.0655	0.1337	0.1551	0.1386	0.042	1				
jasago	0.0928	0.096	0.0972	0.1849	0.1235	0.1422	0.1954	1			
goodperf	0.1281	0.1051	0.0732	0.2238	0.1309	0.2163	0.0947	0.3249	1		
girls	-0.0494	-0.0113	-0.0148	0.0582	0.1119	0.014	0.2112	-0.0497	-0.0778	1	
no2nd	0.1995	0.1826	0.0483	0.1965	0.1928	0.1217	0.0469	0.1741	0.1523	0.022	1
choice ratio	0.6054	0.7688	0.1344	0.1853	0.0859	0.1206	0.0303	0.0373	0.0603	-0.033	0.151

#### IV. 분석 결과

전 장의 로짓 모형식을 각 학교에 대한 다음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양한 설명변수의 조합으로 분석하였다.

- ① 2019년 현재 2학년을 대상으로 경제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1, 아니면 0
- ② 경제 과목이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이면 1, 아니면 0
- ③ 선택이 가능한 학교 중에 실제 개설되었으면 1, 아니면 0
- ④ 2019년 현재 1~3학년 학생들의 재학 기간 중 경제 과목이 학교지정과목으로 개설되면 1, 아니면 0

〈Table 10〉은 ① 2019년 현재 2학년을 대상으로 경제 과목이 개설되었는지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는 서울 소재(capital), 자율고 또는 특목고(sps), 여고(girls), 2학년 학생 수(no2nd),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metro), 시·군·구 단위 지방소득세(incometax), 해당 학교에서 경제를 학교지정과목으로 제공하는 학년이 있는 경우(econm) 등이다. 이들 설명변수는 여고 여부를 제외하고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을 보였다. 여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의 조합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goodperf)와 사립(private)도 유의한 경우가 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 여부는 서울 소재 여부 및 자율고 또는 특목고 여부 변수가 같이 포함될 때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서울 소재이면서 자율고나 특목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립 여부는 소득 수준과 경제 학교지정과목 제공 여부 변수가 포함될 때 유의성이 사라졌다. 또한 〈Table 6〉에 따르면 자율고나 사립의 경제 과목 개설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jasago) 여부가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17) 〈Table 10~13〉과 〈Table 16~17〉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선택에 있어서 다른 과목과의 경쟁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choiceratio)를 포함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해당 변수의 경우 〈Table 9〉에서는 종속변수들과 상관계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로짓 분석에서는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표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0〉 Logit Analysis Results (Dep. Var.: econ2nd)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capital	1.082*** [0.151]	1.090*** [0.152]	1.046*** [0.153]		0.952*** [0.161]
sps	0.317* [0.172]		0.357** [0.174]	0.325* [0.173]	0.297* [0.177]
girls	-0.344** [0.150]	-0.367** [0.149]	-0.398*** [0.153]	-0.392*** [0.151]	-0.380** [0.156]
goodperf	0.327 [0.240]	0.466** [0.236]	0.270 [0.243]	0.472** [0.234]	0.171 [0.251]
no2nd	0.424*** [0.0648]	0.414*** [0.0648]	0.426*** [0.0651]	0.457*** [0.0648]	0.426*** [0.0665]
jasago		0.0788 [0.357]			
private			0.210* [0.119]	0.258** [0.117]	0.105 [0.123]
metro				0.447*** [0.116]	
incometax					0.114* [0.0610]
econm					0.974*** [0.140]
Constant	-2.056*** [0.156]	-1.999*** [0.153]	-2.131*** [0.163]	-2.239*** [0.165]	-2.335*** [0.172]
Observations	1,758	1,758	1,758	1,758	1,758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경제 과목 제공을 균형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공급측, 수요측 요인을 살펴 보면, 경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존재 여부를 대표적인 공급측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대리하는 변수인 해당 학교에서 경제를 학교지정과목으로 제공하는 학년이 있는 경우 변수의 계수가 유의한 양수를 보인 것을 주목할 만하다.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 영향을 보이는 〈Table 11〉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변수가 2학년 경제 개설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20.9%p로, 포함된 변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sup>18)</sup> 경제 과목이 2학년에 개설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경제가

18) 〈Table 11, 13, 15, 17〉의 한계 영향은 각 설명변수의 평균에서 계산된 수치이다.

선택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것인데, 경제를 가르칠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실제 개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가장 많은 설명변수를 포함한 (5) 식에서 다른 공급측 요인인 학교의 설립 형태는 경제 개설 여부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수요측 요인 중 서울 소재 여부는 경제를 가르칠 교사가 있는지 여부와 유사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6%p, (5) 식 기준). 대도시 소재 여부는 이보다 훨씬 낮은 8.81%p이다. 또 다른 수요측 요인인 2학년 학생 수(백 명 단위)의 경우 백 명이 증가할 때 (5) 식 기준 8.05%p 경제 개설 가능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택 과목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실제로 개설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의 하나인 경제 개설 가

〈Table 11〉 The Marginal Effect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Dep. Var.: econ2nd)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capital	0.239*** [0.0362]	0.241*** [0.0363]	0.230*** [0.0365]		0.206*** [0.0380]
sps	0.0642* [0.0364]		0.0726* [0.0373]	0.0659* [0.0367]	0.0592 [0.0369]
girls	-0.0625** [0.0257]	-0.0666*** [0.0254]	-0.0717*** [0.0257]	-0.0707*** [0.0255]	-0.0677*** [0.0260]
goodperf	0.0669 [0.0521]	0.0977* [0.0534]	0.0546 [0.0517]	0.0990* [0.0529]	0.0335 [0.0510]
no2nd	0.0813*** [0.0122]	0.0795*** [0.0123]	0.0816*** [0.0123]	0.0876*** [0.0122]	0.0805*** [0.0124]
jasago		0.0154 [0.0710]			
private			0.0407* [0.0233]	0.0502** [0.0231]	0.0199 [0.0234]
metro				0.0881*** [0.0233]	
incometax					0.0215* [0.0116]
econm					0.209*** [0.0326]
Observations	1,758	1,758	1,758	1,758	1,758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여고의 경우 경제 개설 가능성을 (5) 식 기준 6.77%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 남고, 공학, 여고의 순으로 경제 개설 비율이 낮아지는데, 다른 변수들로 통제된 후에도 경제 과목 개설에 대한 성별 차이가 남아 있는 것이다. 수요측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수는 지역의 소득 수준을 대리한 가구당 지방소득세(천 원 단위)이다. 가구당 지방소득세가 천 원 증가할 때 경제 개설 가능성은 2.1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 증가의 절대적 규모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 변수와 경제 교사 존재 여부 변수가 포함되면서 학교 설립 형태와 관련된 변수들(sps, goodperf, private)의 유의성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12> Logit Analysis Results (Dep. Var.: econpossible)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capital	1.261*** [0.153]	1.254*** [0.154]	1.236*** [0.154]		1.131*** [0.160]
sps	0.130 [0.167]		0.161 [0.168]	0.172 [0.165]	0.119 [0.170]
girls	-0.123 [0.134]	-0.127 [0.133]	-0.162 [0.137]	-0.136 [0.134]	-0.143 [0.138]
goodperf	0.261 [0.242]	0.265 [0.238]	0.219 [0.244]	0.466** [0.232]	0.113 [0.251]
no2nd	0.336*** [0.0588]	0.327*** [0.0590]	0.338*** [0.0590]	0.381*** [0.0583]	0.329*** [0.0598]
jasago		0.349 [0.367]			
private			0.155 [0.111]	0.228** [0.108]	0.0913 [0.113]
metro				0.288*** [0.108]	
incometax					0.143** [0.0691]
econm					0.665*** [0.137]
Constant	-1.466*** [0.138]	-1.437*** [0.136]	-1.521*** [0.144]	-1.597*** [0.143]	-1.673*** [0.152]
Observations	1,758	1,758	1,758	1,758	1,758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Table 13〉 The Marginal Effect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Dep. Var.: econpossible)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capital	0.304*** [0.0357]	0.302*** [0.0359]	0.298*** [0.0362]		0.273*** [0.0382]
sps	0.0302 [0.0391]		0.0374 [0.0397]	0.0400 [0.0391]	0.0274 [0.0398]
girls	-0.0277 [0.0298]	-0.0287 [0.0297]	-0.0364 [0.0302]	-0.0307 [0.0298]	-0.0321 [0.0307]
goodperf	0.0615 [0.0585]	0.0624 [0.0574]	0.0512 [0.0586]	0.112* [0.0573]	0.0262 [0.0590]
no2nd	0.0768*** [0.0134]	0.0748*** [0.0134]	0.0771*** [0.0134]	0.0870*** [0.0133]	0.0750*** [0.0136]
jasago		0.0829 [0.0899]			
private			0.0355 [0.0255]	0.0525** [0.0250]	0.0209 [0.0258]
metro				0.0665*** [0.0251]	
incometax					0.0326** [0.0158]
econm					0.159*** [0.0335]
Observations	1,758	1,758	1,758	1,758	1,758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경제 과목의 실제 개설은 경제 과목의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Table 12〉와 〈Table 13〉은 ② 경제 과목 선택 가능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와 비슷한 분석을 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는 실제 개설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Table 10~1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한 변수는 서울 소재, 2학년 학생 수, 대도시 소재, 지방소득세, 경제 학교지정과목 제공 존재로, 자율고 및 특목고와 여고 변수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구당 지방소득세로 대리된 소득 수준의 유의성은 이전 결과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서울 소재 대신 특별시·광역시의 대도시 여부를 포함한 (4) 식에서는 서울 소재 변수가 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와 사립 변수가 대도시 여부와 함께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가능한 과목 중에 실제 개설되는 과목은 학생의 수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면, 어떤 과목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는지는 학교의 제공 의사를 더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과목 제공 의사에는 해당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있는지와 같은 공급측 요인도 작용하지만 학생들로부터의 수요 조사나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소득 수준 및 서울 소재 여부가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고 짐작된다.

〈Table 1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 영향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여부가 경제의 선택 과목 포함 가능성을 가장 많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7.3%p, (5)식 기준). 그 외에도 경제가 선택 과목에 포함될 가능성은 경제를 가르칠 교사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학교에서(15.9%p, (5)식 기준), 2학년 학생 수가 증가할 때(7.5%p, (5)식 기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당 지방소득세가 천 원 증가할 때 경제의 선택 과목 포함 가능성은 (5)식 기준 3.26%p 증가하는데, 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경제 과목 개설 여부에 대한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여고의 경우 경제 과목의 실제 개설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제를 선택 과목에 포함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는 않으나, 실제로 개설될 만한 수요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경제를 선택 과목에 포함한 학교 중에는 어떤 특성을 갖는 학교가 실제로 개설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Table 14〉는 경제가 선택 과목에 포함된 6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제 개설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선택에 있어서 다른 과목과의 경쟁 정도도 실제 개설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경제가 포함된 선택 과목들 범주의 선택 대상 과목 수 대비 해당 범주에서 선택하는 과목 수를 나타내는 변수(choiceratio)를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여고, 2학년 학생 수, 대도시, 경제 학교지정과목 제공 존재 등 네 개의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에서 중요성이 컸던 서울 소재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경제의 선택 과목 포함 여부에 서울 소재 영향이 매우 크지만, 일단 선택 가능하게 된 후에는 서울 소재 학교라고 특별히 개설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서울 소재 학교의 경제 개설 여부는 경제가 선택 과목에 포함된 것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다. 반면, 비록 서울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대도시 소재 변수는 경제가 선택 과목에 포함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실제로 개설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학생 수와 경제 학교지정과목 제

공 존재도 경제의 선택 과목 포함 가능성과 경제가 선택 가능할 때 실제 개설될 가능성 모두를 유의하게 높였다. 여고 변수는 위의 결과들에서 추론된 바와 같이 선택 과목 포함 가능성에는 유의하지 않지만 경제가 실제 개설될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가구당 지방소득세 변수는 종속변수를 경제 개설 여부와 경제 선택 가능 여부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성 있는 계수를 보였지만 선택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 개설 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변수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 개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가 선택 과목에 포함되는 데 미치는 영향력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4〉 Logit Analysis Results (Dep. Var.: econ2nd among econpossible)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6)
capital	0.272 [0.237]	0.289 [0.237]	0.237 [0.239]		0.198 [0.254]	0.201 [0.254]
sps	0.446 [0.307]		0.493 [0.310]	0.428 [0.313]	0.478 [0.312]	0.471 [0.313]
girls	-0.600*** [0.227]	-0.637*** [0.226]	-0.633*** [0.229]	-0.649*** [0.231]	-0.596** [0.233]	-0.602*** [0.233]
goodperf	0.162 [0.423]	0.385 [0.432]	0.0924 [0.428]	0.0739 [0.428]	0.0672 [0.436]	0.0644 [0.436]
no2nd	0.474*** [0.115]	0.474*** [0.116]	0.480*** [0.116]	0.456*** [0.115]	0.491*** [0.117]	0.486*** [0.118]
jasago		-0.265 [0.553]				
private			0.203 [0.199]	0.162 [0.200]	0.0544 [0.205]	0.0559 [0.205]
metro				0.525*** [0.202]		
incometax					0.00625 [0.0834]	0.00718 [0.0833]
econm					0.965*** [0.269]	0.975*** [0.271]
choiceratio						-0.257 [0.698]
Constant	0.0398 [0.260]	0.0958 [0.256]	-0.0460 [0.273]	-0.120 [0.276]	-0.194 [0.284]	-0.105 [0.373]
Observations	633	633	633	633	633	633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Table 15〉는 〈Table 14〉의 결과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 영향을 보여준다. 경제 과목이 선택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 개설 가능성은 경제 과목이 어느 학년에서든 학교지정과목으로 제공되는 사실이 있는 학교에서 (6) 식을 기준으로 15.1%p 증가하여 공급측 요인인 이 변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고에서는 실제 개설 가능성이 11.8%p 감소한다. 자율고나 특목고 변수는 〈Table 14〉에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지만 변수의 변동성까지 감안한 〈Table 15〉의 결과에서는 10% 유의 수준에서 양(+)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Table 15〉 The Marginal Effect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Dep. Var.: econ2nd among econpossible)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6)
capital	0.0480 [0.0401]	0.0510 [0.0400]	0.0420 [0.0409]		0.0344 [0.0429]	0.0350 [0.0429]
sps	0.0749 [0.0468]		0.0819* [0.0463]	0.0715 [0.0478]	0.0778* [0.0457]	0.0768* [0.0459]
girls	-0.120** [0.0484]	-0.128*** [0.0487]	-0.127** [0.0492]	-0.130*** [0.0495]	-0.117** [0.0490]	-0.118** [0.0492]
goodperf	0.0285 [0.0719]	0.0648 [0.0660]	0.0165 [0.0751]	0.0132 [0.0753]	0.0118 [0.0757]	0.0114 [0.0758]
no2nd	0.0866*** [0.0208]	0.0869*** [0.0209]	0.0876*** [0.0208]	0.0828*** [0.0207]	0.0879*** [0.0206]	0.0870*** [0.0208]
jasago		-0.0515 [0.114]				
private			0.0368 [0.0357]	0.0292 [0.0358]	0.00971 [0.0365]	0.00998 [0.0365]
metro				0.0937*** [0.0351]		
incometax					0.00112 [0.0149]	0.00129 [0.0149]
econm					0.149*** [0.0348]	0.151*** [0.0348]
choiceratio						-0.0459 [0.125]
Observations	633	633	633	633	633	633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들에서 경제 개설 여부에 공급측 요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학교지정과목 제공 존재, 즉 ④ 2019년 현재 1~3학년 학생들의 재학 기간 중 경제 과목이 학교지정과목으로 개설되는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이다. 즉, 경제를 가르칠 교사의 존재 여부가 어떤 변수들로 설명되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이 변수는 위의 분석들에서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9년 현재 3학년에 경제 과목이 학교지정과목으로 제공된 경우여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2학년에 대한 ①~③의 종속변수들과 내생성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선택 과목의 실제 개설 여부가 경제 교사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내생성의 문제가 없어 보인다.

〈Table 16〉 Logit Analysis Results (Dep. Var.: econm)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capital	0.437** [0.177]	0.407** [0.179]	0.306* [0.181]		0.353* [0.186]
sps	0.325* [0.191]		0.474** [0.197]	0.440** [0.199]	0.476** [0.197]
girls	-0.0801 [0.168]	-0.0886 [0.168]	-0.264 [0.173]	-0.282 [0.173]	-0.259 [0.173]
goodperf	0.328 [0.262]	0.309 [0.262]	0.129 [0.269]	0.183 [0.265]	0.172 [0.273]
no2nd	0.0867 [0.0718]	0.0575 [0.0722]	0.0819 [0.0735]	0.0801 [0.0737]	0.0846 [0.0736]
jasago		0.839** [0.353]			
private			0.743*** [0.137]	0.742*** [0.136]	0.741*** [0.137]
metro				0.265* [0.138]	
incometax					-0.0679 [0.0689]
Constant	-1.912*** [0.166]	-1.825*** [0.162]	-2.191*** [0.178]	-2.241*** [0.179]	-2.158*** [0.181]
Observations	1,758	1,758	1,758	1,758	1,758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Table 16〉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사립 변수의 유의성이 가장 강하고 그 외 서울 소재, 자율고 및 특목고, 자사고, 대도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사립의 경우 공립에 비해 교사의 전근이 적고 학교의 명성에 대한 고려가 일반적으로 더 강한 경향이 있는 것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설명변수의 한계 영향을 계산한 〈Table 17〉에서는 사립 학교에서 경제가 학교지정과목으로 제공된 가능성이 (5) 식 기준 10.4%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율고 및 특목고가 7%p 안팎의 영향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2) 식의 자사고일 때 경제 학교지정과목 제공 가능성이 14.6%p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특목고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경제 과목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Table 6〉에 따르면 특목고에 포함되는 과학고등학교는 분야의 특성상 경제

〈Table 17〉 The Marginal Effect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Dep. Var.: econm)

Explanatory Variables	(1)	(2)	(3)	(4)	(5)
capital	0.0662** [0.0294]	0.0613** [0.0294]	0.0438 [0.0279]		0.0513* [0.0292]
sps	0.0482 [0.0305]		0.0710** [0.0328]	0.0653** [0.0325]	0.0714** [0.0328]
girls	-0.0108 [0.0223]	-0.0119 [0.0221]	-0.0333 [0.0205]	-0.0353* [0.0204]	-0.0326 [0.0206]
goodperf	0.0492 [0.0430]	0.0462 [0.0425]	0.0178 [0.0387]	0.0257 [0.0392]	0.0241 [0.0402]
no2nd	0.0119 [0.00981]	0.00786 [0.00987]	0.0109 [0.00977]	0.0106 [0.00979]	0.0112 [0.00978]
jasago		0.146** [0.0744]			
private			0.105*** [0.0198]	0.104*** [0.0197]	0.104*** [0.0198]
metro				0.0361* [0.0192]	
incometax					-0.00904 [0.00916]
Observations	1,758	1,758	1,758	1,758	1,758

Note: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and \* indicate being significant at 1%, 5%, and 10%, respectively.

개설 비율이 낮고, 국제고등학교는 개설 비율이 높으나 수가 적으며, 외국어고등학교는 일반고의 개설 비율보다 평균적으로 낮다. 이는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 과목의 비중이 높아 다른 선택 과목의 제공 폭이 제한적이고, 선택 과목 중에서는 수능에서 응시율이 높은 과목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V. 맺는 말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한가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 지식이 어떠한 지속력을 갖는지 확신을 갖기도 어렵다. 그러나 Stigler(1970)가 주장한 것처럼 시민으로서 경제 지식은 스스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고, 어쩌면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학과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국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와 예술 계열 특목고를 제외한 전수인 1,758개 고등학교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이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차이의 설명 요인을 공급측과 수요측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경제를 가르칠 교사가 있는지가 경제 과목 개설에 가장 큰 한계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가르칠 교사가 있는 경우는 특히 사립고에서 유의했다. 서울 소재이거나 전체 학생 수가 많을수록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은 유의하게 높아지지만, 여고인 경우 경제 과목이 선택 과목에 포함되는 데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실제로 개설되는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 과목이 실제 개설되거나 선택 과목에 포함되는 데에 가구당 지방소득세 규모로 대리한 소득 수준도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다.

경제 교육이 시민의 경제 소양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역량과 금융 이해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 교육의 지역별, 성별, 소득별 차이는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약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이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경제 과목의 선택 과목 지위에 대한 재고도 필요할 것이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임용확대 또는 경제 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



고, 사회 교사의 경제 교육 전문성 향상 등이 시급해 보인다. 물론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경제 교육이라면 교육 내용과 교과목, 교육과정의 재편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분야 마이크로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황과 필요성, 성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 참 고 문 헌

1. 기획재정부,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재)시장경제연구원 수주 용역연구보고서, 2011.  
(Translated in Englis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olicy Suggestion to Activate Economy Education at the Schools*, 2011.
2. 김지운, “한국의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경제학연구』, 제68집 제1호, 2020, pp. 71-113.  
(Translated in English) Kim, Jiwoon, “Sources of Lifetime Inequality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68, No. 1, 2020, pp. 71-113.
3. 박문규, “고등학교 경제 이해력 테스트 조사결과,” 『경제교육연구』, 제9권 제3호, 2002, pp. 33-61.  
(Translated in English) Park, Moon Kyu, “The Results of Test of Economic Literacy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9, No. 3, 2002, pp. 33-61.
4. 박상은 · 오영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일반사회 선택 학생의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2015, pp. 141-161.  
(Translated in English) Park, Sangeun, and Youngsoo Oh, “Characteristics of Students by Their Course Choice in Social Studies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2, No. 3, 2015, pp. 141-161.
5. 박형준 · 김은영, “경제 과목에 대한 인식이 수능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제57집, 2013, pp. 85-104.  
(Translated in English) Park, Hyung Joon, and Eunyoung Kim, “The Effect of the Students’ Perceptions of High School Economics on the Selection of Economics in the Korean Scholarstic Aptitude Test,” *Education Research*, Vol. 57, 2013, pp. 85-104.
6. 안병근, “대입 수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2010, pp. 1-16.  
(Translated in English) Ahn, Byoung Geun, “The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Choice of Economics in Korean SAT,”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17,

No. 2, 2010, pp.1-16.

7. 정연호 · 한경동 · 장경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과목의 난이도와 선택률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2012, pp.47-71.

(Translated in English) Chung, Yun Ho, Kyungdong Hahn, and Kyungho Jang, “A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the Difficulties of Test and Its Selection of Economics Subject 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Vol. 30, No. 3, 2012, pp.47-71.

8. 조영석 · 박송춘, “고교생 금융경제지식의 지역별 차이 연구,” 『경제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2008, pp.121-143.

(Translated in English) Cho, Yeong-Suk, and Song-Choon Park, “A Study on the Regional Gap in Highschool Students’ Financial and Economic Knowledg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15, No. 2, 2008, pp.121-143.

9. 한경동,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지역적 편차,” 『경제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2016, pp.1-21.

(Translated in English) Hahn, Kyungdong, “Economic Education in High School and Geographical Variation,”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3, No. 3, 2016, pp.1-21.

10.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제 과목 응시에 나타난 고등학교의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2018, pp.47-60.

(Translated in English) Hahn, Kyungdong,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s in the Examination of Economics Subject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5, No. 3, 2018, pp.47-60.

11. 한경동 · 장경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2011, pp.45-57.

(Translated in English) Hahn, Kyungdong, and Kyungho Jang,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Select Economics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18, No. 2, 2011, pp.45-57.

12. Bach, G. L., “Economics in the High School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fe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73<sup>rd</sup>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61, pp.579-586.

13. Becker, William, William Greene, and Sherwin Rosen, “Research on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n the 102<sup>nd</sup>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90, pp.14-22.

14. Bosshardt, William, and Michael Watts, “Instructor Effects and Their Determinatns in Precollege Economic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1, No. 3, 1990, pp.265-276.

15. Grimes, Paul W., Kevin E. Rogers, and Rebecca C. Smith,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and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 44, No. 2, 2010, pp.317-335.

16. Louis Harris & Associates, Inc., *The Standards in Economic Survey*, New York: Louis Harris & Associates, Inc., 1999.

17. Ruud, Paul,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Consistency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Despite Misspecifications of Distribution in Multinomial Discrete Choice Models," *Econometrica*, Vol. 51, Issue 1, 1983, pp.225-228.
18. Stigler, George J., "The Case, if Any, for Economic Literacy,"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1, No. 2, 1970, pp.77-84.
19. Walstad, William B., "The Effect of Economic Knowledge on Public Opinion of Economic Issu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8, No. 3, 1997, pp.195-205.
20. \_\_\_\_\_, "Economics Instruction in High Schoo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0, No. 4, 1992, pp.2019-2051.
21. \_\_\_\_\_, "Economic Education in U.S. High Schoo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 No. 3, 2001, pp.195-210.
22. Walstad, William B., and Ken Rebeck, "Assessing the Economic Understanding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 No. 2, 2001, pp.452-457.
23. Walstad, William B., and John C. Soper, "A Report Card on the Economic Literacy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8,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10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88, pp. 251-256.
24. Wuttke, Eveline, Jürgen Seifried, and Stephan Schumann(Eds.), *Economic Competence and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dults: Status and Challenges*, Opladen; Berlin; Toronto: Verlag Barbara Budrich, 2016.

## A Study of Difference in the Economic Education in the High Schools

Sejin Min\* · Jinjoo Hong\*\*

###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existence and the cause of difference in the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The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as in 2019, 27.4% of the high schools provide the economics subject. Secon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the provision of the subject is biggest for the existence of the teachers who can teach economics. Third, the probability of the provision of the economics i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rea the school is located in, the size of the school, the household income level of the area, and the gender composition of the school.

**Key Words:**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gap in economics education, logit analysis

**JEL Classification:** A2, I2

---

*Received: Sept. 8, 2020. Revised: Dec. 1, 2020. Accepted: Jan. 10, 2021.*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Seoul,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Phone: +82-2-2260-8670, e-mail: sejinmin@dongguk.edu

\*\* Co-Author, Teacher, Kwangdeok High School, 532, Sunhwan-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15257, Korea, Phone: +82-31-8040-4600, e-mail: redpearl844@naver.com